

YULLIN
Newsletter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

열린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성경 토크하기

사람은 무엇으로 호흡하는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복’에 해당하는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느끼는 행복을 가리킵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성공이나 실패, 기쁨이나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내가 왜 사는지 혹은 내가 왜 그곳에서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은 성도가 느끼는 행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 의를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2절). 행복한 자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심장의 폐부를 찌르는 듯한 한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묵상하다’는 ‘율조리다’ 혹은 ‘호흡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숨을 들이쉬면 산소가 심장으로 들어가 혈관을 통해 온 몸에 퍼져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듯이 우리가 호흡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자꾸 내 영혼 안에서 생각하고 율조려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 어제 보았던 말씀, 이번 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영혼의 숨을 쉬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산소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영혼에 말씀이 없으면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답답하고 정말 쓰러질 것 같아야 합니다.

세상의 꿈을 꾸면 영혼이 살아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갖고 싶은 자동차를 상상하면 행복해지고 돈을 생각하면서 영혼이 소생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말씀 아닌 헛된 것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영혼을 헐뜯리게 한다면, 말씀으로 그 호흡을 다 빼내야 합니다. 세상의 욕망들을 비워내고 주의 말씀을 주입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진중한 깨달음이 일어나고, 예배시간 들은 말씀이 심령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감동되며, 지난(至難)한 인생길에서 한 말씀을 율조리며 힘을 얻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만난 말씀에서 길을 발견하는 경험이 이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



 텍스트와 콘텍스트

하나님 앞에 손을 든 자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4:17-24



김성진 담임목사

본문의 배경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갈데아 우르에서 나온 아브람(아브라함 이전 이름)은 가뭄 때문에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헤브론 근처에 살게 되었고 그의 조카 롯은 아브람과 헤어져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전쟁은 그저 고대에 있었던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한 이유는 이 전쟁에 관여된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람의 조카 롯입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연관된 전쟁이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롯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속한 서부연합군이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이 동부연합군에게 포획되어 끌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바로 그들을 쫓습니다. 그리고 밤에 기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부연합군의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되찾아 내려옵니다. 본문은 아브람이 동부연합군을 대파하고 돌아오는 길을 서부연합군의 왕들이 영접 나오는 중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서부연합군들에게는 아브람의 승리가 기쁨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의 패배로 빼앗긴 사람들과 재물을 다시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반길 일이지만 그것을 되찾아온 주인공이 서부연합군 소속의 왕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느낄 때는 아브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존재 아브람과 평화조약을 맺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앞에 손을 들다

서부연합군 중에서도 제일 앞에서 아브람을 맞으러 오는 두 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델기세텍이라고 하는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람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소돔 왕 베라입니다. 아브람의 승리를 한편으로는 반가워하면서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소돔 왕은 아브람과 델기세텍의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이용해서 자신이 빼앗겼던 정치적 입지를 다시 세워보고자 합니다.

소돔 왕은 전쟁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 온 아브람에게 와서 하는 첫마디는 매우 허세 섞인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히브리어 본문에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교만한 말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모병제와 의무병제가 다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모집했는데 실상은 자진해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해서 빼앗은 것들이 노획한 그 군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브람은 자신의 종들을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아브람이 얻은 물품과 사람은 다 아브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소돔 왕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권위적인 자세로 아브람을 향해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아브람이 이 소돔 왕의 허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속에는 아브람의 위대한 신앙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의 원 의미는 ‘내가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손을 든 적이 있었다’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땅을 사고 파는 등의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알리는 동작이 당사자끼리 손을 들어서 상대방의 손바닥을 딱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람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든 적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람이 맺은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 많은 사건 중
당신의 백성 관련 일들에
관심 두시는 하나님

세상 성공보다
언약을 기억했던 아브람에게
방패와 상급 되어주신 하나님

성도는
복을 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창12:1~3). 우상의 땅 갈데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과 땅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람은 소돔 왕에게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너의 재물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노획한 것은 다섯 나라의 사람과 재물이었으므로 아브람 자신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브람의 인생에 있어서 일국의 왕이 될 수 있는 전무후무한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서는 보

잘것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브람의 복의 근원은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보이는 현실적 성공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성취를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후에’

아브람이 믿음으로 세상의 성공을 거부한 이 사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15장 1절에 보면 ‘이 후에’라는 도입 단어로 아브람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15:1). 원문에서 보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구원자가 될 것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복을 기다리는 아브람에게 천지의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와 같은 구원자가 되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만을 기다리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브람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람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그때 아브람은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의 나이 90이 가깝도록 자손이 없었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 사람으로서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이 실현될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15:2).

이 질문에 하나님은 그때까지 자식이 없던 아브람에게 이제는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15:4).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이라고 믿으며 세상이 주는 성공의 기회를 거부하였던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복인 아들을 주시겠다고 확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복을 좇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을 주십니다. 사람의 재물,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맺음말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행할 것은 성실히 그 언약을 지키며, 순종과 사랑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실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비록 성공의 길로 보일지라도 그 길에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더더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는 길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아브람에게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실 것입니다. ☆

리더십세대교체/김성진 담임목사

저는 열린교회에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28년 전 방배동의 허름한 건물 지하실에 위치한 작은 개척교회에, 군대에서 전역하고 갓 복학한 대학 1년생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청년부에 소속되어 또래모임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교회학교 교사로 초등3~4학년 반을 맡아 섬겼습니다. 예배 전후에는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는 차량 봉사도 했으며,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글로 풀어서 남기는 녹취헌신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7년 후에 그 청년은 그 교회의 담임목회자로 위임받았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12월 30일에 위임식을 치룬 김성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관련기사 6면). 본호에서는 열린신문에 기록된 목사님의 발자취를 찾아 보았습니다. 지면상 필요 부분만 발췌하여 소개합니다.(편집부)

3. 김성진(9/22등록)
김미영 자매님의 남동생. 현재 누님과 함께 역삼동에서 살고 있으며 군대를 제대하여 총신대 1학년에 복학하여 공부하고 있음.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열망에 불타서 신학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진로를 위해서 공부하며 준비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신 아주 진지하고 신실한 형제님 이시다. 가족은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과 결혼한 누님 한 분,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미영 누님, 그리고 남동생이 한 명 있다.

(18호/1996년 10월)

새가족 소개

김성진(9/22등록)
김미영 자매님의 남동생. 현재 누님과 함께 역삼동에서 살고 있으며 군대를 제대하여 총신대 1학년에 복학하여 공부하고 있음.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열망에 불타서 신학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진로를 위해서 공부하며 준비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신 아주 진지하고 신실한 형제님 이시다. 가족은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과 결혼한 누님 한 분,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미영 누님, 그리고 남동생이 한 명 있다.

구역탐방/청년 제7구역

우리 청년 7구역은요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은 겨울도 담념어 피어나는 개나리웃음에는 힘을 잃고 어느새 따뜻한 바람이 밀려오는 만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저희 청년7구역을 소개하면서 무엇에 비할까 고민하다가 하얗게 봉우리를 쥐고 있는 목련을 바라보며 이렇게 꽃봄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언제나 저희 구역은 봄꽃이 만연합니다. 지난 겨울 강추위 속에서도 우리에겐 언제나 따뜻한 봄기운이 넘쳤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강풍이 부는데도 저희 구역 원들의 어지트인 은하 자매의 방에는 만연한 봄꽃(?)이 항상 넘쳤습니다.

한 사랑만은 누구보다도 뜨거운 자매입니다. 이외에도 언제나 저희를 위해서 집을 제공하고 커피를 제공하시는 은하자매도 있고요, 저희 7구역의 영원한 언니, 후경자매도 포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원 소개는 이쯤하고요, 저희는 점심식사가 끝나면 교회에서 가장 멀리에 가서 구역모임을 합니다. 그것도 멋진 교회차를 타고요. 은하 자매집에가서 구역장님이 지난주에 나누어주신 공과를 공부하고, 성경구절을 공부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김성진

(23호/1997년 4월)

초기 열린교회 청년을 거친 목사님 인터뷰

착한 성도에서 선한 목자로

요즘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중이죠. 20년 전 무렵의 시대 상황, 노래와 패션까지 아우르는 가운데 우리네 향수를 자극하여 연일 메스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소중한 옛 흔적,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 저변에 지닌 그리움이라는 속수가 우리가 누렸던 기억과 접촉하면서 추억이라는 아름다운 고풍스러운 단어가 생긴 듯합니다. 한 해도 마무리 되어가는 12월, 우리 성도들에게도 추억거리가 생겼습니다. 열린교회가 올해로 어느덧 창립19주년(설립20주년) 생일을 맞이했다는 소식입니다. 교회가 열아홉 나이를 두르는 동안, 그 시작을 모르는 이들도 늘어 가기에 잠시 그 때를 회상해 보려합니다. 청년의 모습으로 방배동 지하실 교회 문턱을 밟았을 때 그분들의 추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20년 뒤 지금은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성도들의 목양과 사역에 힘쓰시는 분들, 아성호, 전희철, 김성진 세 분의 열린교회 목사님들과 함께합니다. 응답하라 방배동! 응답하라 열린교회.



(222호/2013년 12월)

열린교회 청년 출신 목사님들 인터뷰 중에서

Q. 열린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책을 통해 목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총신대학교 신학과 학생이었는데 처음에 수요예배를 꾸준히 드리면서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학교 초등학교 3~4학년 교사로 섬겼는데, 아침에 일찍 다마스라는 차를 이용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공과공부를 했던 것과 예배를 드리고 다시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섬김이 아주 좋았어요. 제게는 열린교회의 예배나 교제가 당시 많은 걸 채워주며 잘 맞았던 것 같아요.

Q. 19년 전 방배동 지하실 교회,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봄빛 가운데 고요함’ 그 좁은 공간에 항상 성도들로 가득 찬 가운데 굉장한 고요함이 있었어요. 사람이 뻥뻥하게 모여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는 아무런 잡음이나 작은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던 어떤 소리도 나지 않던 고요함. 성경책을 넘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짧은 설교 가운데 단 한 번도 성도 어느 한 명의 눈빛도 놓치는 것을 담임목사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온 회중의 집중함이 있을 때 목사님이 갖고 계신 역량도 전부 쏟아져 나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설교 때 목사님의 모습이 평상시와 다르다면 그건 누군가가 예배 중에 집중하지 못하다는 증거였죠(웃음).

Q. 방배동 지하실 교회 vs 평촌 열린교회, 더 나은 점은?

그때가 더 좋았던 점은 정말 다 가족과도 같았어요. 청·장년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포함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심방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그 당시에 예배의 정신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예배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관점으로 마음과 몸가짐을 토요일부터 준비하며 예배로의 집중을 위해 힘썼어요. 지금이 더 나은 점이라면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양육이라는 점에서 훨씬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신앙 교육들이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내게 열린교회란..

제게 있어 신학은 학교에서 배웠고, 신앙은 열린교회에서 배운 것 같아요. 신학적인 지식들이 세상 속에서 녹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말씀 사역들을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마음을 잘 다듬었던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후배들이 간혹 제게 스타일은 다르지만, 김남준 목사님 분위기가 난다고 해요(웃음). 목사님께서 9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에 외치셨던 안타까움, 당시 호세아서 강해 설교가 제게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제 자신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하는 기간이었어요. 열린교회는 배웠던 신학들을 마음속에서 다지고 신앙생활로 하나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훈련받은 곳입니다. 제게는 신학을 하든, 목회를 하든 언제라도 다리를 디딜 수 있는 반석과도 같은 곳, 튼튼한 돌과 같은 곳이 열린교회라 여겨집니다.

구역탐방/우리 청년 7구역은요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은 겨울도 담념어 피어나는 개나리웃음에는 힘을 잃고 어느새 따뜻한 바람이 밀려오는 만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저희 청년 7구역을 소개하면서 무엇에 비할까 고민하다가 하얗게 봉우리를 쥐고 있는 목련을 바라보며 이렇게 꽃봄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언제나 저희 구역은 봄꽃이 만연합니다. 지난 겨울 강추위 속에서도 우리에겐 언제나 따뜻한 봄기운이 넘쳤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강풍이 부는데도 저희 구역원들의 어지트인 은하 자매의 방에는 만연한 봄꽃(?)이 항상 넘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봄기운의 정체를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봄기운의 첫 번째 비밀은 저희 구역에는 항상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저희 구역의 교제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사랑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난 신앙생활 동안 이토록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만끽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점심식사가 끝나면 교회에서 가장 멀리에 가서 구역모임을 합니다. 그것도 멋진 교회 차를 타고요. 은하 자매 집에 가서 구역장님이 지난주에 나누어 주신 공과를 공부하고 성경 구절 암송도 하고, 서로의 한 주 간을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도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서로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서로가 어느 정도 벽을 가지고 자신을 감춘 상태에서 한 발을 뒤로 하고 얼굴만 내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가 없다면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청년 7구역에는 진실한 교제와 나눔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에 구역원 간에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짧은 구역공과 시간임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고 뜨거운 교제 가운데 서로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저희 청년 7구역입니다.

또한 저희 구역은 식사 후에 주방에서 더욱 빛이 나는 구역입니다. 언제나 설거지 차례가 되면 가장 신속히 청결하게 주방을 정리합니다. 산더미 같은 설거지 감들도 저희 7구역이 투입되면 금세 산뜻하게 정리되고, 입과 손이 각기 제 할 일을 부지런히 함으로 우리의 교제는 주방의 설거지 사역 가운데서도 깊어만 갑니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저희 구역을 소개함이 조금 미흡한 듯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의 직접 방문을 유도하고자 이상으로 잘 나가는 저희 청년 7구역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의 사랑의 교제에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열린교회, 열린구역, 청년 7구역을 찾아주세요. 언제나 저희에게 따뜻한 사랑과 교제와 맛있는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역원들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태아부예비맘스쿨 후기

양육, 최고의 영성훈련 여정

❄️ 첫째를 임신했을 때는 코로나가 가장 심한 시기였기도 하고, 열린교회에 등록 전이라 이런 태아부 예비맘스쿨을 접하지 못해 아쉬워서 둘째를 임신하게 되면 꼭 듣고 싶은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태아부 담당 집사님께서 먼저 전화를 주셔서 당시에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교구 전도사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축하한 다며 신청하라고 알려주셔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태아부 예비맘스쿨 개강일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4주 동안 예비맘스쿨을 갈 때마다 마치 연회장에 가는 것처럼 저와 태중의 아기가 환영받는 느낌이었고 아름다운 찬양과 전도사님의 귀한 말씀, 눈까지 즐거운 맛있는 간식들과 매시간 정성껏 알차게 프로그램 준비하고 섬겨주시는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종강일에 산모 지체분들이 준비한 '나의 다짐' 발표 시간은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제게 맡겨주신 두 자녀를 생각하며 말씀 안에서 어떤 부모로 준비되고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을 이루니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 127:3).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강예배의 말씀이 지금은 감사와 은혜로 다가오지만, 오랜 난임의 시기를 겪을 때는 오히려 이 말씀이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

하지 않으셔서인지 믿지 않는 자에게도 잘 생기는 자녀를 왜 나에게만 선물로 주시지 않는지 원망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신뢰하며 가장 좋은 때에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결혼 4년 내내 자연임신만을 기다리다가 의술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니 도움받아 보라는 친한 언니의 말을 듣고 난임 병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첫째와 둘째 모두 시험관시술로 한두 번 만에 단기간에 착상되게 하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저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았나 반성했습니다. 4년 동안 한 번 유산 후 2년 반 만에 첫째가 생겼는데 돌아해보면 처음보다 그때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환경과 여건이 가장 좋은 때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완벽하시다는 사실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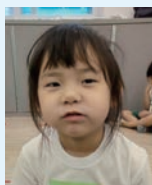
찬양과 말씀, 기도 외에도 매주 특강이 인상 깊었는데, 김주희 집사님의 찬양이 있는 간증은 복직으로 인해 멀리 지방에서 두 자녀를 키우시며 지금도 고민하는 육아의 어려운 부분들을 진솔하게 나눠주셔서 공감되었고, 권혜령 집사님과 비폭력 대화와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실천 연습을 해보며 자녀나 남편에게 어떤 식으로 대화해야 할지 평소 언어생활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동훈 집

사님과 그림책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 보다 논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확장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조정윤 집사님과 축하 꽃다발을 만들면서 예비맘스쿨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매시간 알차고 산모들과도 고민을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자녀 계획을 준비하거나 임신 중인 자매님들께 꼭 들으라고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 달 동안 과제로 게리 토마스의 『부모학교』를 읽고 책나눔을 하였는데 '자녀 양육 과정이야말로 인간이 떠날 수 있는 최고의 영성 훈련 여정의 하나'라는 저자의 말이 가장 와닿았으며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두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깨달으면 자녀 양육의 시련과 희생을 감내하기가 훨씬 쉬워지며, 자녀 양육의 신성한 여정 중에 눈물도 많이 흘리겠지만 길모퉁이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은 앞으로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두렵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던 저에게 도전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과제로 한 주에 한 구절씩 책갈피에 말씀을 적고 암송하여 태아에게 들려준 것처럼 예비맘스쿨이 끝났어도 지속해서 하며 저와 태아의 심중에 말씀을 새기려 합니다. 자녀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적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나아가며 부단히 성장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

등불학교 후기



유치부 김도은

25기 등불학교 때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과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함께 만들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면서 말씀을 배우는 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등불학교가 시작한다고 했을 때 또 하고 싶다고 엄마에게 얘기했어요. 등불학교 숙제로 매일 자기 전 아빠와 암송 연습을 했어요. 3개의 말씀은 아직도 기억해요. 첫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되니까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을거란 생각을 했어요. 둘째는 '조용한 생활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며 손수 일하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외우며 홈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장난감을 사줄 때 보다 매일 엄마 아빠 일을 도우며 받은 용돈으로 원하는 물건을 샀더니 돕는 일도 힘들지 않았고 선물 받은 장난감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졌어요. 셋째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 말씀은 외우기가 쉬웠어요. 말씀이 이해가 안되고 외우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외우기 쉬운 말씀도 있어서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등불학교를 듣는 동안 매일 숙제를 하고 말씀 암송을 하는 것이 조금은 힘들었어요. 하지만 주일에 들은 말씀을 엄마와 다시 읽고 정리하며 말씀이 더 잘 이해됐어요. 예배 시간에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등불학교 수료식 때 고양이 저금통을 선물로 받았어요. 용돈을 받고 돈을 저축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고양이가 귀여워서 고양이한테 계속 동전을 밥으로 주고 싶어요. 등불학교를 듣지 않은 친구들한테 힘들어도 말씀을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서 꼭 들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



유년부 신지호

등불학교는 제게 특별해요. 이번 등불학교에서는 돈과 시간을 배웠어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돈, 하나님께 헌금할 돈, 이웃을 도와줄 돈 나눠서 사용해야

해요. 영상으로 강의를 볼 때, 박사님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우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 우물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고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우물이 진짜같아서 신기했고 들어가면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재미있는 만들기랑 활동도 많이 했어요. 도미노를 세워서 똑같은 그림을 만드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다음 등불학교는 또 언제 할지 기대되고 기다려져요. 친구들아, 등불학교 같이 하자! ☆



초등부 옥새힘

등불학교를 들으면서 돈과 시간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먼저, '돈'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돈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는, 돈이 오로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필요한 지출도 많이 했었는데 등불학교 강의를 듣고 나서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나는 청지기로서 돈을 잘 관리해야겠다고 깨달았다. 또 돈을 관리하는 습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돈을 사용할 때는 헌금에 10%, 저축에 50%, 지출에 40%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실천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소중히 써야 한다는 것과,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일관성과 끈기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번 등불학교의 주제는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것이어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다. 배운대로 실천해서 선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고 싶다. ☆



소년부 백선울

저는 이번 등불학교 주제인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돈, 그리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주제가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아까운 시간을 많이 흘려보낼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의

문점이 생겨 등불학교를 신청했습니다. 매주 주일 들은 말씀을 요약하고, 성경 암송하고, 강의를 듣고, 반 친구들과 이번 주제인 돈과 시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우리는 돈과 시간을 잘 활용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지 않게 사용한 적도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시간을 할 일에 우선순위를 정해 두지 않고 생활하고, 내게 주어진 돈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지 못해 혼란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돈과 시간을 잘 활용해야겠다고 다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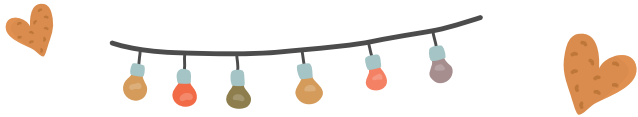
각자에게 장래 희망이 있습니다. 그 장래 희망을 가지고 싶은 이유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을 수도 있고, 내가 위해서 그 직업을 가지고 싶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돈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시게 사용하여 좋은 결실을 맺었는지,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아 손해를 보았는지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번 등불학교에서 배운 내용 중 가장 제가 활용하고 싶은 내용은 신회철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게 주어진 돈 중 10%는 십일조, 60%는 저축, 나머지 30%는 지출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무분별하게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던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으고,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주간 계획표를 만들며 흘려보냈던 아까운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반 친구들과 교제하며 각자의 일을 다시 점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치부 때부터 꾸준히 참여했던 등불학교가 벌써 끝났다니 아쉽기도 하고, 다음에는 더 많은 학생이 등불학교를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26기 등불학교를 준비해 주신 전도사님과 총무님,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돈과 시간을 활용하고 좋은 습관을 들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제 마지막 등불학교를 마칩니다. ☆



유아세레 후기

유아세레를 통한 나의 회심



김영민 장년4교구
soulkym@nate.com



❄️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묵상하고 알아갈수록 삶에 감사함이 더욱 커지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내가 세례를 받은 때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주일만 겨우 출석할 시절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감동이 없었
던 것 같다. 우리 가정은 5월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거처를
옮겼다. 곧바로 열린교회에서 새가족교육을 마치고 6월에
정식으로 등록했다. 거처를 옮기기 전부터 교회를 정하는
부분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스스로도 그 기도
를 많이 드렸던 것 같다. 한국으로 오게 된 동기가 하나님
의 부르심과 소명에 있지 않고 나의 어떠한 이유 때문이라
는 사실에 참 많은 영적 무너짐과 부족함을 발견했고, 그렇
게 가는 한국 땅에서는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
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함으로 만난 열
린교회는 말씀의 내용도, 시스템도 이전 교회와 달랐다. 사
실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마귀는 '다름'의 이유로 한동안 우리 가정을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게 했다.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것이 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지배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절실히 기도도 하며 우

리 가정은 영적 씨름의 과정에 있게 되었다.

그 시기쯤 유아세레에 대한 광고가 나왔고 세례자로 신
청을 했다. 영적인 회복이 있고자 해서 열심히 참여했다.
참여하며 과제로 주어진 설교 내용 정리와 소감 작성에는
매우 큰 감동이 있었다. 약 30년이 지난 말씀이었으나 성
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사랑을 다시 한
번 알게 하셨고 현재 내가 그분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한 알게 하셨다. 그래서 교구 목사님과 영적인 상담도 하
며 고민하고 있을 즈음 문득 성장반에서 '사명'에 대해 나
눌 기회가 있었다. 그때 사명으로 많이 고민하고 회개했던
이전의 시간을 성령께서 갑작스럽게 다시 생각나게 하셨
다. 목사님의 질문에 일단 더듬더듬 대답을 하고 그 일 후
에 다시 그것에 대해 묵상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서는 현재 보여주시는 이 교회와 말씀, 또 성도
들이 나의 사명의 자리이며 섬겨야 할 영혼이 아닌지 돌아
보게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랑을 늘 마음에 가
지고 감사함으로 섬겨야 할 사명의 자리가 이곳이 아닌지
기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렇
게 간구했던 한국 땅에서의 사명에 대한 기도 제목을 들어
주고 계신데 그것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곧바로 회개하게 되었고, 교만한 마음은 금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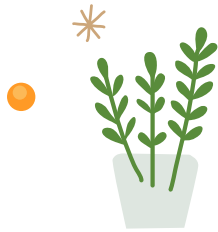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성령께서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서있는 이곳
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섬겨야 한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
다. 그 마음으로 유아세레의 남은 시간을 더욱 큰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했다. 문답 준비, 신앙고백문 작성 등 모든
과정에 내가 받는 세례인 것처럼 준비했다. 회복을 위한 열
정만으로 준비한 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참여한
것도 아니었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준비하고 참여했다. 그런 마음으로 작성한 신앙
고백문을 읽어 내려갈 때는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눈물이 앞
을 가리는 감동도 있었다.

이번 열린교회의 유아세례를 통하여 한 가정의 가장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영을 정직하게 돌
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아이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길 바라는 마음을 주셨다. 늘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과정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것 같다. 이
번 유아세례 과정을 통해 나로 회심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나의 영혼에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도 주님 안의 평안을 허
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

아빠LevelUp1 후기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아빠들의 몸부림



이제형 장년6교구
david27@korea.kr



❄️ 저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책에서 답을 찾아 그 문
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결혼할 배우
자를 위한 기도는 군에 있을 때부터 하였지만, 책으로 연애
를 배워서 여자의 심리를 몰라 아내가 답답해 하는 남편입
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는
저의 큰 즐거움이었던 개콘에서 받을 수 없는 전혀 다른 차
원의 놀라운 기쁨을 느끼며 행복했지만, 둘째 딸을 낳았을
때는 기쁨과 함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하는 현
실 인식,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준비 없이 아빠
가 된 저는 또 다시 책을 들어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책은 현실의 모든 상황에 답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책은 많이 읽는데 적용은 언제 하냐고 물어서 아직
내 안에 정립이 되지 않았다고 답하였는데, 그 사이 아이들
은 훌쩍 커버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육아를 거의 하지 못해 아내에게 너무나 미
안합니다. 건설회사에 현장근무로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
어오고 주말도 출근하여, 회사를 옮겼으나 이번엔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출장인 때가 많아 육아는 오로지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주변엔 늘 친절하지만 육
하고 성화되지 못한 성격인 저는 회사의 스트레스를 분리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쏟아냈
습니다. 가정을 꾸려나가려면 회사에서 견디어야 하지만,
그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예민해진 저는 아이들이 가까
이 하기 어려운 아빠가 되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어렵게
직장을 다시 옮겼으나 상황은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이들은 모나지 않
게 컸습니다. 큰아이는 너무나 감사하게 신앙 안에서 청년
이 되었습니다. 욕심과 열정이 많은 둘째는 고등학교에 입
학하고 과하게 공부에 열정을 쏟더니 그 밝던 아이가 학교

도 학업도 낙버렸습니다. 무기력하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상담과 병원
까지 다니며 노력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부는 문제
도 아니고 아이만 건강하면 그뿐이었습니다. 맞벌이로 잘
돌볼 수가 없어 보낸 할머니댁에서 새벽을 기도로 여시
는 할머니의 지극정성으로 다시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2가 되었는데 둘째는 다시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
를 보겠다고 합니다. 아이의 수행평가 과제물량과 요구하
는 학업량은 어마어마한데 노력한 만큼 결실도 맺지 못하
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코로나 이후 아이는 교회마저 나가
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드리겠다고 합니다. 교회와 집이 대
중교통으로는 왕복 3시간이라, 아이들이 어릴 땐 섬기는
아빠를 늘 기다려 자가용으로 다녔으나 머리가 커지니 그
시간이 아깝다고 주장합니다.

20여 년 간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믿고 지지해주던 아내
도 결혼 후 처음 너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맞벌이하면서
사춘기 딸을 챙기고 가사의 대부분을 감내하는 아내가 처
음으로 자기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이러다가 신
앙을 떠날까, 학교를 떠날까, 가까운 교회라도 본예배를 드
리게 하여야 하나, 고민이 많던 상황에 '아빠 Level Up 1'이
라는 열린교회 최초의 아빠를 위한 상담교실이 열려 자발
적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상담위원장님의 강의로 시작된 4주간의 교육은 아동발
달의 이해, 자기 이해, 내 아이 이해, 아빠 되어주기 등 소주
제로 구분되었으며, 그 주옥같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까
봐 열심히 적었습니다.

1과에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만, 이렇게 아
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에게는 사랑과
인정만큼 훈육도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2과에선 남편

과 아내의 성격과 생활태도가 양가 부모님의 성격과 자랄
때의 집안 분위기와 연결되어서 현재의 나와 아내가 있고
나와 아내의 성격과 삶의 자세가 형성되어짐을 알게 되었
습니다. 3과에서는 가정의 의사소통 시 아빠의 말이 엄마
가 중간 소통창구로 아이에게 전달되는지, 가족구성원이
전체가 직접 의사소통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지가
사춘기 자녀의 사회적 관계에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
다. 4과에서는 아이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 말고 경청하고
이때 아이의 감정까지 슬픈지, 서러운지 들어야한다는 것
과 I-Message로 대화하기를 배웠습니다.

매주 한 시간 강의를 듣고 아이의 나이에 따라 4개조로
나눠서 서로의 문제를 나누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서로
의 비밀보호를 위해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을 만들었고 나
눈 이야기는 절대 외부에 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조에서는 간혹 웃음소리도 들리곤 하였으나, 고등학생 자
녀를 둔 우리 조는 약간의 무거움도 감돌았습니다. 각자 자
녀에 대한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기에 우리 조는 늘 예정시간을 한참
지나 끝나곤 했습니다.

너무나 짧은 4주간의 교육이었지만 참으로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서 참여한 아빠들은 앞다투어 다음 '아빠
Level Up 2'가 언제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귀한 교육을 기
획하고 추진해주신 상담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
람으로 세우기 위해 지금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아빠들에게 이 교육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성화되지 못
한 아빠가 잘못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고(받아줄 때까지)
이제 한 단계 Level Up 된 아빠로 살아가겠습니다. ☆

교역자사임

열린교회에서 받은 사랑 잊지 않습니다

❄️ 제가 열린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22살 때부터입니다. 그 당시 저는 참으로 갑갑한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의 때에 저를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서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해 고난주간에 동아리방에서 혼자 기타를 치며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본 열린교회 고난주간 십자가사경회 포스터가 생각났습니다.

고1 때부터 김남준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저였기에 이제는 책이 아니라 직접 설교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린교회로 발걸음을 옮겨 사경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말씀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사경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열린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열린교회에서의 생활은 생각지도 못한 교역자로서의 사역으로 이어졌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저에겐 마지막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어찌 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방배동에서 평촌으로, 그리고 화재 전 예배당에서 지금의 예배당으로, 열린빌딩에 이어 세빛빌딩에 이르기까지 곳곳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 형제자매들과 함께한 시간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추억으로 떠오릅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다시금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신발 끈을 고쳐매게 해 주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가슴 아파하며 울어야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린교회는 저를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고, 제가 또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보여 주시고,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도록 빛소망교회를 개척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는 주역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의 신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생각하며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

를 부르셔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저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빛소망교회가 세워지도록 많은 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는 것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열린교회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섬긴 것보다 비교할 수없이 저를 더 많이 섬겨 주셨던 성도님들의 사랑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저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저는 전도자와 설교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토록 좋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쉽고, 이토록 저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과 헤어지는 것이 슬픔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영광의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린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생애적인 변화를 경험케 하신 것처럼 빛소망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품어 주시고 섬겨 주셨던 성도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김성구 목사
빛소망교회



임시노회와 공동의회

2023년 12월 19일 잠실새내교회당에서 동서울노회 제104회 제1차 임시노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노회에서는 열린교회 김남준 담임목사님의 시무사면 청원과 김성진 목사님의 위임목사 청빙 청원도 함께 상정되어 가결되었고, 이에 따라 12월 30일에 김성진 담임목사 위임식을 진행할 수 있는 교회법적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12월 25일 열린교회 공동의회는 김남준 담임목사 은퇴예우(안)의 건, 2023년 내·외부 감사보고의 건, 2023년 결산보고의 건, 2024년 예산(안)의 건을 안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는 총 664명의 투표자 중 531명의 찬성(반대 132명, 무효 1)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폐회선언 이후에 10명의 사무장로님이 단상에 나와서 담임목사님의 조기은퇴 및 이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해 사과하였고, 향후 교회 섬김자들의 윤리 기준을 세우고 지켜가도록 독려하며 공동체의 거룩함을 살피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알렸습니다.

김성진 담임목사 위임감사예배

2023년 12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린교회 본관 3층 예배실에서 열린교회 2대 담임목사인 김성진 목사님의 위임감사예배와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는 많은 눈에도 불구하고 내외빈 630여 명이 함께하였습니다.

1부 예배에서는 박규용 목사님(동서울노회 위임국장)의 사회와 박준호 목사님(판교사랑의교회)의 기도, 김경옥 목사님(푸른사랑의교회)의 성경봉독, 연합성가대의 찬양, 박진석 목사님(반석교회)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제목의 설교에서는 제사장 위임과 관련된 6가지 요소(직분, 예복, 제사, 회막과 제단, 언약, 영광)는 모두 ‘거룩’을 향하고 있는데 거룩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교회, 목회자, 성도는 모두 하나님을 위해 거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부 위임식에서는 위임국장 박규용 목사님의 개식사와 공

동청빙위원장 김남근 장로님의 청빙경과보고에 이어서 노회장 박성은 목사님의 집례로 김성진 목사님의 위임서약, 열린교회 교인들의 위임서약, 위임기도, 위임공포, 위임패증정 시간이 있었습니다. 뒤이어 위임목사에게 하는 권면에서는 신영호 목사님(평강교회)이 담임목사는 내면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이어가야 하며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라고 격려했습니다.

교인에게 하는 권면에서는 서성범 목사님(잠실양문교회)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복을 받은 열린교회 교인들이 이제는 믿음의 말씀(히4:2)으로 양육받기를 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병철 목사님(삼동교회)의 축사에서는 일반적으로 2대 담임목사가 고충이 많음을 감안하고 서로 협력해서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꽃다발 증정에 이어진 김성진 목사님의 답사에서는 위임전에 이어진 어려움 가운데서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열린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부담과 동시에 위로가 됐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열린교회를 생명 다해 목회하겠다고 초심 잃지 않고 겸손히 섬기겠다고 하였습니다. 뒤이어 열린교회 30주년 기념 영상 시청과 교역자들의 특송, 공동청빙위원장 김기현 장로님의 광고, 부도회장 강문진 목사님(진리교회)의 축도로 위임식이 마쳤습니다.

1월 주요사역

- 3일(수) 교직원시무예배
- 7일(주일) 청년부새내기성년식
- 8일(월)~12일(금) 교구특별새벽기도회/사경회 홍보전도
- 15일(월)~18일(목) 새해말씀사경회
어린이새해말씀사경회
- 20일(토) 중직자기도회
- 20일(토)~3월30일(토) 피택임직자교육(10주)
- 21일(주일) 성찬식/교사수련회
- 21일(주일)~2월4일(주일) 청년부 상반기 결혼예비학교(3주)
- 28일(주일) 새가족환영축제/연합교사교육

추천도서

팀 켈러의 기도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

팀 켈러(최종훈 역)/두란노

본서는 저자 팀 켈러가 갑상선암을 겪으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20여 년 동안 시편으로 기도에 대해 배우고 탐구한 것들을 치열하게 적용하고 훈련한 시간을 가진 후에 얻은 결과물이다.

책에서 저자는 아내가 든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기도 없는 삶이 얼마나 영적 건강을 악화시키는지 말하고 있다. 기도를 기도답게 하는 법을 안내해 주는 수많은 책을 섭렵하면서, 저자는 자신에게 가장 도전을 주었던 기도 안내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존 오웬, 장 칼뱅의 기도법을 우리에게 간략하지만 핵심 원리들을 소개하고 있다.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에 성공한 저자의 초대에 응해 보자. (교보문고)



새가족

▶▶ 장년

김기숙(63) 배은정(88)
양내원(60) 엄유화(68)
최병인(74) 배재은(96)
박나영(79)
윤승환(87)

▶▶ 청년

김민음(92) 유광무(85)
홍은진(84) 황예인(04)
김재이(98)
심성민(98)
송민진(82)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희생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다 해보며 남부럽지 않은 2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찾아 즐기는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 제 계획대로라면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했지만 교제하던 남자친구와는 헤어지게 되었고 집안의 상황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크게 좌절하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었기에 그 때어야 주님께 간구했던 가난한 여인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에 시작하여 2022년 2월 결혼 전 날 마무리된 작정기도 시간을 통해 크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배우자와의 만남과 지금의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며 때를 쓰는 시간이었다면 기도 시간이 쌓일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 유일한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수가 하루하루 늘어날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저의 성급함을 내려놓게 되고 잠잠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무렵의 어느 날, 교회 사모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사모님께서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좋은 신랑감이 있는데 혹시 소개해 줄 자매가 있냐는 내용이었답니다. 신기하게 그 날 새벽에 사모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제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간절히 하셨는데 그 전화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당장 연락을 주셨고 저도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만남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고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많은 분의 축복 가운데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후에 거할 신혼집을 안양으로 정하고 예배할 교회를 찾았습니다. 평촌 지역에는 좋은 교회가 많았기에 여러 곳을 놓고 고민하던 중 친한 강도사님의 소개로 열린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예배를 드린 뒤 남편과 같은 마음으로 끌림이 있는 열린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며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꼽는 것은 성장반 과정을 미루지 않고 참여한 일입니다. 작년 11월 말 아기를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어느 정도 마친 뒤 2월부터는 대면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청년 때와 달리 육아로 인해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저만의 시간이 줄어드니 갈급한 마음이 커진 시기에 성장반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여의찮았지만, 전도사님과 목양팀 집사님들의 도움으로 백일도 되지 않은 아기를 데리고 성장반 모임에 나와 한 주간 주어진 말씀을 듣고 정리하여 나누는 시간은 육아로 지쳐 있던 저에게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아주 시원한 생수와 같았습니다.

성장반 과정 중 13강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내용을 통해 그동안의 저의 예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교회 어른들께는 인정받는 청년이었지만, 예배 시간에 매번 졸고 출석부에 도장 찍듯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편 51편 17절).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고 눈물로 철저히 회개하며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다윗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저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 안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놓으며 다윗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단을 실행에 옮겼을 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 최대한 앞자리에 앉기 위해 애쓰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있다는 좋은 핑계거리로 망설였던 금요기도회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는 남편과 아기와 맨 뒷자리에 앉아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목표 말씀이 생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동안의 삶은 저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살았다면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몸소 보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내 안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지금은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의 이름 ‘조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기쁨이 되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

곰곰이 생각

교회를 주신 것, 교회되게 하신 것에 감사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열매를 맺는 땅을 주신 것보다
땅을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고,



화목한 가정을 주신 것보다
가정을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다.



위기를 극복하는 공동체를 주신 것보다
공동체를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다.



이전에 없던 감사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주신 것보다

서로를 교회로 보게 하신 것,

서로에게 교회 되게 하신 것에 먼저 감사합니다.

— 11월 19일 주일 예배를 드리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1~22절)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6교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로운 해(年)를 의미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4
새해말씀사경회



온라인 방송 | 열린교회 유튜브 채널



임재! 그 거룩한 만남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
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
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
(출애굽기 29장 42절下 ~ 43절)

일시 1.15.(월)~18.(목) 오후 7:30
장소 본관 3층 예배실
강사 김성진 담임목사

교회학교
새해말씀사경회

유아, 유치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해요!(시 5:1-3)
유년, 초등, 소년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요 19:17-18)
사랑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요 1:12)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성진
- 시무장로 김남근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 부목사 박재현 김동기 박철웅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김태영 손하람
- 협동목사 정창욱
- 강도사 김진산 최영광
- 전도사 곽혜정 조희숙 정경아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양승희 이지연 이월순 김민성 김진하 이두호 조일권 김다영
- 교육전도사 이해선 김태훈 권세원

파송선교사

- A국: 4 units / B국: 1 unit / C국: 1 unit
-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혜림
-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 국내 디아스포라: 정진학 & 손원향

예배시간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사랑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오전 11시 30분 (세빛빌딩 5층 중국실) 上午 11时 30分 (世光大厦 5层 中文室)
새벽기도		오전 5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시편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백향목공동체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 10시 (본관 1층 예배실)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